

2023
작은도서관
이야기

작은 문화 공간에 숨겨진 별별 세계

2023 작은도서관 이야기

2023
작은도서관
이야기

작은 문화 공간에 숨겨진 별별 세계

+ ○



+

○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비매품/무료

13060



9 791196 680558
ISBN 979-11-966805-5-8

2023
작은도서관 이야기

2023

작은도서관 이야기

작은 문화 공간에 숨겨진 별별 세계

contents

INTRO

목차	06
들어가는 말	08
한눈에 보는 2023 작은도서관 이야기	10

PART 01 공립 작은도서관

- 행복한작은도서관	16
- 청개구리작은도서관	20
- 별뿔별과학도서관	24

PART 02 사립 작은도서관

I. 아파트 운영 작은도서관	
- 네이처포레 작은도서관	30
II. 교회 운영 작은도서관	
- 담소작은도서관	34
III. 단체 운영 작은도서관	
- 라보 작은도서관	38
-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	42
- 책돌이도서관	46

IV.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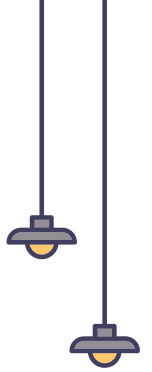
- 시루작은도서관	50
- 작은도서관당나귀	54
- 기쁨이 자라는 작은도서관	58
- 나들목가족도서관	62

V. 특화 작은도서관

-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66
- 늬내골실버작은도서관	70
- Book Bridge 작은도서관	74
- 별뿔별작품터 봉헌작은도서관	78
- 우리소리도서관	82

PART 03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

- 작은도서관 이용 후기 이벤트	88
- 작은도서관 가을 테마 사진 공모전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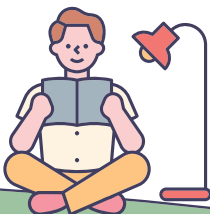
들어가는 말

작은도서관은 일상생활 주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하며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도서관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특화 주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진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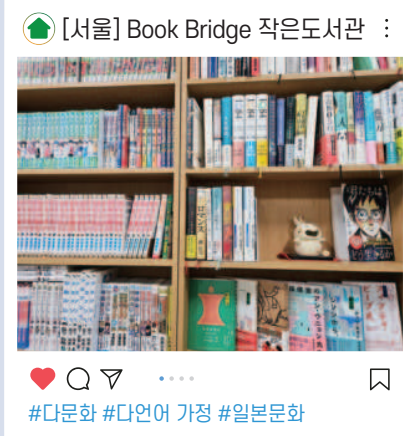
2023 운영사례집은 운영진과 자원활동가들의 작은도서관 운영 노하우와 신규 도서관의 독창적인 활동 아이디어는 물론, 이용자들이 더 많은 책을 접하고 보다 다양한 주제의 독서문화를 접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전국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만날 수 있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 지식과 정보의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공동체가 살아나는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눈에 보는 2023 작은도서관 이야기





Part 01

- 행복한작은도서관
- 청개구리작은도서관
- 별똥별과학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행복한작은도서관

행복한작은도서관은 사단법인 일과사람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직장인들을 위해 연장 운영, 책축제, 직접 찾아가는 독서문화 활동, 추천도서 등 이들의 성장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많은 이들이 복잡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책을 읽고 소통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운영	주소	유형
월 ~ 금 10:00~20:00 토 10:00~18:00 (일 휴관)	경기도 부천시 상오정로 10, (오정동) 부천시노동복지회관 2층	공립 작은도서관



‘일하는 사람들’ 맞춤 서비스로 행복 열매 맺는 곳

도서관은 산업단지이자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지대로 문화시설이 적은 부천시 오정동에 2003년 4월에 문을 열었다. 노동복지회관 부설기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운영 주체의 비전에 따라 부모와 직장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물 같은 공간이다.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일상에서도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녁 8시까지 운영 중이다. 덕분에 주민들은 시간을 내서 들러 마음의 여유와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곳에서 오랜 기간 근무 중인 박주연 사서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일조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가족, 친구, 동료 모두가 문화를 나누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죠. 아낌 없이 주는 나무처럼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책과 쉼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성장하며 숲을 이루는 나무처럼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책을 통해 성장하는 사서가 되고자 해요.”

성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이 독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영유아 보육 기관 견학과 책놀이 프로그램, 토요일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청소년 자원봉사 독서동아리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한다.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를 이롭게 하는 성장터로

아이가 생후 16개월 차부터 육아 관련 책놀이 동아리 ‘꿈나라이야기나라’를 참여하고 7여 년 동안 거의 매일 방문하는 이용자 유미씨는 도서관을 통해 성장했다고 자랑해 마지않는다. 항상 아이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며 영어, 역사 등을 가르쳤고, 옆에서 같이 책을 읽어 한국사 1급 자격증까지 을 취득해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처음에 아이와 함께 있을 곳을 찾다가 동아리를 통해 도서관을 알게 됐어요. 영아라 자주 울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편하게 지내라고 해주셔서 감동했죠. 집과 가깝고 편안한 분위기에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항상 필요한 걸 물어보며 대화를 나누는 정 많은 도서관이랍니다.”

유치원 대신 도서관에 와서 공부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책을 읽고 노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독서뿐만 아니라 책축제, 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본인한테 작은도서관이 학교라고 말하는 아이는 문해력과 영어 능력도 또래 중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요한 건 배우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의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에 참여하

며 성취감을 천천히 깊게 느껴보세요.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에 딱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지금과 같이 공유하고 성장하는 따뜻한 공간이 지속되는 것이예요.”

계속해서 책으로 배움을 공유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행복한작은도서관. 이용자의 소망처럼 오랫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으로 이용자와 도서관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청개구리작은도서관

전남 목포시 부흥동에는 유동 인구가 많아 10년간 지역민들이 바뀌는 와중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킨 청개구리작은도서관이 있다. 이용자와 활발히 소통하며 함께 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부흥동에 독서문화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공간이다.



운영

화 ~ 토 09:00~18:00
(월, 일 휴관)

주소

전남 목포시 옥암동 통일대로
75번길 10호(옥암동, 부영 3차)
상가 3층 307호

유형

공립 작은도서관

대화와 소통으로 맞춤형 책을 추천하는 곳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한 청개구리작은도서관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2013년에 조성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건물 3층에 있어 방문하기 꺼려질 수도 있으나 운영진들, 특히 도서관에 상주하는 박미진 운영자가 청결에 신경 쓰고 잘 운영되다 보니 불편함을 감수해 방문하는 주민이 많은 동네 사랑방이다.

"아이들이 오면 바닥에 누워서 책도 보고, 텅굴기도 하는 편안한 공간이라 전시물을 주기적으로 바꾸고, 매일같이 청소와 책을 정리해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요. 이런 점이 이용자들이 맘 편히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개관 전부터 도서관 명칭을 주민 대상의 설문으로 정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상호작용을 해 자연스럽게 부흥동 독서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북큐레이션도 항상 진행하지만 10년간 운영하다 보니 이용자 대부분이 대화를 통해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받는다.

이용자와 운영진은 책 추천과 소소한 일상 대화도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이다. 도서 선정에 도움을 주는 센스는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신간 도서나 읽은 책에는 간략한 내용의 메모를 붙여 놓는 세심함도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도록 이끈다.





지역주민 니즈에 맞춘 운영으로 발길 끊이지 않아

도서관이 잘 운영된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다른 동네에서도 일부러 들르는 사람이 생겼다. 그중 무안군에 거주하는 한 어머니는 좋은 책이 많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청개구리를 알게 된 후 매주 두 자녀와 방문하고 있다. 원래 책과 담을 쌓고 살던 아이들이었는데 운영진이 추천해준 책을 재밌게 읽은 후 독서의 매력에 빠져 꾸준히 다닌 덕분에 가족 다 대출자도 되고, 교내외 독후감 대회에서 수상하는 성취를 이루기도 했다.

청개구리는 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용자 의견도 반영해 장서 선정과 서가 배치에 신경쓴다. 한 이용자는 10년간 꾸준히 대출해 1천 권 읽기 목표를 달성했는데 현재도 계속 신기록을 깨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약을 맺어 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이 도서관에서 강의를 진행해 전문 강사로 성장하기도 한다.

또한 전통, 전래, 독서, 영어책 읽기 및 놀이 등 '놀이'가 들어가거나 코딩과 3D펜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인기 만점이다. 특히 올해 3개월간 진행한 과학놀이는 아이들이 매주 빠짐없이 참여했다. 어른 대상으로는 공예가 사랑받아 라탄과 같은 트렌드에 맞춘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아이들의 성향별 독서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이야기하는 부모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리된 공간이 없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이동식 책장들을 옮겨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용자들도 이제 익숙해져서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 재능기부 하던 분이 도서관 활동가나 프로그램 강사가 되는 사례도 많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언제나 자리를 지키는 평생 독서문화센터로

도서관은 운영진과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 전반을 맡는다. 작년까지는 노인일자리, 사회공헌활동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예산이 줄어들며 보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할 예정이지만 예산 마련에는 여전히 빠듯한 실정이다. 2013년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조성해 그 이후에도 매년 도서, 프로그램 등 후속 지원이 그나마 힘이 되고 있다.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하려다 보니 예산에 맞춰 축소하는 경우가 생겨 아쉽죠. 그런데도 2021년에 마을학교를 운영해 진행한 기자 인터뷰, 청소년 토론 동아리 활동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단체로 놀러 온 일, 노후에 독서로 보내는 일상이 행복하다는 어르신, 부모교육과 책을 통해 성장하는 부모님들 등 이용자분들이 끊임없이 보람을 주는 덕분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어요.”

이용자들과 함께해 10년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운영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삶을 이야기하는 곳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이사 온 낯선 지역이 적응될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굳건히 부흥동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은 청개구리작은도서관. 10년 뒤에도 언제나 따뜻하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일상을 담은 공간으로 지켜나가길 기대해본다.



별뚱별과학도서관

과학과 기술의 중심지 대전시 유성구에는 각종 프로그램과 과학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별뚱별과학도서관이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과학 특화 작은도서관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지향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독서문화를 만들어 간다.



운영

화 ~ 토 10:00~17:00
(월, 일 휴관)

주소

대전시 유성구 죽동로 322, (죽동) 2
층, 죽동문화센터

유형

공립 작은도서관



공간별 다채로운 특성이 살아 숨 쉬는 곳

별뚱별과학도서관은 2016년 유성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죽동문화센터에 개관했다. 유성구의 지역 특성과 연계한 연구, 과학도시의 이점을 살린 활동이 활발하다. 도서관 이름도 '유성'의 순우리말인 별뚱별이다. 전체 장서가 1만 6천여 권인데 그중 50% 이상이 과학 도서이며, 60%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유·아동 과학 도서는 관심 가지고 있다. 나머지 장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있다.

별뚱별은 문화센터 2,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서가가 가득 찬 공간이다. 북큐레이션을 전시해 놓은 일반열람실과 신발을 벗고 들어가 편안하게 책 읽을 수 있는 어린이열람실이 있다. 어린이열람실에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있어 만화와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는 아늑한 곳이다.

3층은 동아리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실과 문화행사, 수업을 진행하는 강당이 있다. 현재 별☆책, 글방, 영어책 독서동아리 세 개가 있는데 모두 성인 대상이다. 이전에는 도서관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그림책을 읽는 동아리와 세밀화를 그리는 동아리 등 여러 가지가 진행됐다.

“그림책 동아리에서 그림책 내용을 클레이로 만들고, 세밀화 동아리에서는 공들여 그린 그림을 출품해 갤러리처럼 전시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었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봉사와 소통으로 더욱 반짝이는 활동

별뫔별 자원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6주에 걸쳐 총 36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수인데도 35명이라는 많은 수의 자원활동가가 활동 중이다. 이 중 아홉 명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속해있고,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주요 안건은 효율적인 운영 모색과 행사, 교육의 기획이다.

2018년에 자원활동가들과 지역 아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별뫔별, 그 놀이터’는 1기와 2기로 나뉘어 행사가 이뤄졌으며, 결과자료집도 만들어 자원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낳았다. 2021년에는 개관 5주년을 맞이해 자원활동가들의 인터뷰를 담은 ‘아무튼, 우리는 별뫔별’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방역으로 침체한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은 이벤트로 이용자들까지 큰 위로를 얻었다.

“책 만드는 기쁨을 경험해서 지난해에는 ‘내가 만든 그림책’이라는 아이들이 그림책을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완성작을 많은 이용자가 볼 수 있게 전시했는데 이번에도 반응이 좋아서 부듯했죠.”

과학 교실, 우주과학 콘서트 등 다양한 과학 문화행사를 구성한다. 현재는 ‘꿈꾸는 노벨 과학 교실 시즌2’가 진행 중이다. 이런 활동들과 유성구에서 진행되는 과학프로그램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해 꾸준히 소식을 전한다.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뫔별 블로그를 통해 알찬 정보를 얻고, 행사에 참여하려 도서관에 들르게 되는 훌륭한 홍보 수단이다.



이외에도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공모에 선정돼 달마다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4월은 이종수 시인을 초청해 ‘시인이 되는 상상’, 5월은 김지연 그림책 작가와 ‘그림책 생활판화’를 진행해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오는 6월에는 극단 도토리야 유아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숲의 기억’이라는 주제의 인형극과 마임을 진행한다.



과학 대중화를 꽃피우는 지역의 평생 아지트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자원활동가로 이뤄진 별뫔별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주민들과 함께 헤쳐나와 어느새 과학의 대중화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서가에 꽂혀있는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처럼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소나무처럼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활동가분들의 ‘함께하는 즐거움’과 ‘나누는 봉사의 기쁨’ 덕이에요. 여럿이서 같이 하니 기쁨이 배가 되고, 힘들 때 서로 다독이는 버팀목이 돼주죠. 계속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놀이터로, 어른들에게는 독서문화와 연결되는 편안한 아지트로 자리할 별뫔별과학도서관. 반짝이는 별뫔별처럼 항상 과학과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빛나기를 기대해본다.

Part 02

사립 작은도서관



I. 아파트 운영 작은도서관

- 네이처포레 작은도서관

II. 교회 운영 작은도서관

- 담소작은도서관

III. 단체 운영 작은도서관

- 라보 작은도서관
-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
- 책돌이도서관

IV.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

- 시루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당나귀
- 기쁨이 자라는 작은도서관
- 나들목가족도서관

V. 특화 작은도서관

-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 늬내골실버작은도서관
- Book Bridge 작은도서관
- 별별창작꿈터 봉현작은도서관
- 우리소리도서관

네이처포레 작은도서관

네이처포레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화합으로 탄생한 공간이다.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을 내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많은 주민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그 움직임을 선도하는 공간이다.



운영

월~수 10:00~17:00,
목~금 13:00~17:00,
(토,일 휴관)

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140,
(은행동) 네이처포레 에듀센터 내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봉사단 손길로 문화의 꽃을 피우다

네이처포레는 아파트 대표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10여 명의 봉사회와 함께 2020년에 개관했다. 처음엔 김예원 활동가가 2019년에 1기 봉사단에 합류해 도서관 매니저를 맡았다가 올해부터는 같은 1기 봉사단인 김민향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이 단지 내에 있어 운영진들끼리 뜻을 한데 모아 활동하니 금방 친해져서 이제는 사이좋은 이웃이다.

은계지구는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이사 온 신혼부부들이 많아 아이와 엄마들이 주요 이용층이다. 영유아부터 하교한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독서하고, 엄마들은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며 삶의 여유를 갖는다. 육아로 경력단절 된 여성들은 집과 가까우면서 아이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네이처포레에서 활동해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기도 한다.

“마을 내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가 개관 때부터 고민이었죠. 코로나 블루가 심화한 시기에 개관해서 등교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과 긴 양육으로 지쳐가는 양육자들에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삼았어요. 어머니들도 양육자이자 이용자, 운영자로도 무수히 참여한답니다.”





주민들 자발적 참여로 이끌어 가는 교육의 장

네이처포레는 정숙하기보다는 조금은 떠들썩한 도서관을 지향한다. 이용 편의를 위해 일반석과 노트북석을 따로 마련했다. 창가 쪽 좌식 공간에선 신발을 벗고 들어가 빈백에 눕거나 테이블에 앉아서 편안하게 독서하며 놀 수 있다. 도서관 옆에 주민 카페와 아동 돌봄센터도 있어서 책을 대출해 카페에서 읽기도 한다.

장서는 운영진의 회의나 매달 입주주민의 희망 도서, 학교와 서점에서 주목받는 책,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도서, 교육 관련 도서를 중점으로 꾸리고 있다. 다른 자랑거리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각자 잘하는 분야를 살려 재능기부 강사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김민향 매니저가 있다.

“책을 읽고 그 책과 보드게임을 연계한 독후활동 프로그램 ‘독서 융합 보드게임’을 계획 중이에요.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의견을 나누며 감정조절을 위한 추론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 중이죠. 가족의 역할과 양육 방식 등을 게임으로 재밌게 배울 수 있답니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학생들 대상의 클레이 공예, 작곡, 그림책 연극놀이, 오르골 만들기, 역사수업과 학부모 대상의 라탄 공예, 수제종이 만들기, 엄마 수업, 미래와 역사 수업, 독서 모임 등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신청을 도서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데 문 열기 전부터 이용자들이 줄을 설 만큼 인기가 뜨겁다.

특히 독서 모임은 2년 전에 엄마들끼리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매주 꾸준히 진행 중이다. 같은 도서를 읽으며 의견을 나누다 보니 자기 계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유아기 인지발달에 좋은 아동 전집을 시리즈 단위로 10~20권을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빌려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애용자도 많고, 영유아도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지난달, 중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개념과 기술을 배우고 미래지향적 진로 목표 설정을 위한 롤러코스터 VR코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반응이 좋아 연령대를 확대해 한 번 더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은 운영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수업 내용과 대상이 주민들에게 필요할지 강의자와 좋은 활동 방향을 함께 구상하고 디자인하며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용자 대부분이 마을 주민이라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맞춤 활동을 구성하고 있어요. 현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죠. 서로서로 협동해서 만들어 가는 도서관이니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성장하는 길이 되고 싶어요.”

열정적인 운영진들 덕에 설립 이후 탄탄한 운영을 자랑해온 네이처포레 작은도서관. 매일 도움을 주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과 요일별로 상주하는 봉사자들은 언제나 들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도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풀어나가는 자치 공간이자 주민들의 배움터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본다.



담소작은도서관

담소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주민들에게 도서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친목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아이와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화 특화 주제의 독서문화 활동을 진행해 사랑받고 있다. 상호대차를 통한 도서 대출, 문화행사 등 동작구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독서와 지식을 나누는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운영

월 ~ 금 08:00~12:00
(토, 일 휴관)

주소

서울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24,
(상도1동) 3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원활한 상호대차 서비스로 열린 소통

담소작은도서관은 열린우리교회의 공간을 문화 사랑방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됐다. 처음에는 '나눔 카페'로 시작했지만,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이 게임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고자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했다. 이제 어엿한 나눔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책과의 담소를 통해 마을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다.

주로 초등학교와 가까워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이용한다. 가장 큰 특징은 만화 특화도서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를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다. 현재 약 4,700여 권의 도서를 갖췄는데 만화책과 학습만화 등의 만화류 절반과 일반 도서 절반 정도로 배치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이 많은 덕분에 상호대차 이용도 활발해 도서관도 상호대차 활성화를 위해 특히나 노력하고 있어요. 한해 대출 권수가 모두 포함해 8천 권으로 보유 장서에 비해 매우 많죠. 다른 도서관에 책을 보내 대출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수가 현저히 높습니다. 동작구에서 상호대차 활동을 지원받아 다행이에요.”

동작구는 사립도 공립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호대차도 공사립 도서관의 정기모임 때 도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눠 시작했다. 상호대차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교육하고, 도서 관리 프로그램도 교육을 진행해 어려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도서도 서울시와 동작구에서 지원받아 주민들이 마음껏 도서를 대출해간다. 특히 웹툰이 만화 도서로 출간되면 많은 이용자가 상호대차를 이용한다.



만화 특성화,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

도서관 내부는 유아들을 위한 공간, 홀에 30여 석의 좌석을 마련해 책을 읽으며 휴식할 수 있다. 장서는 여러 요청에 따라 선정하는데 대출량이 많은 만큼 도서 유지와 관리에 매우 신경 쓴다. 상호대차로 인한 잦은 이동 때문에 자주 손상되는데 그때마다 보수하는 등의 노력에 한 이용자는 책이 잘 관리되고 깨끗해서 같은 책이라도 담소에서 대출한다고 전했다.

도서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방 활동, 보드게임, 만화 그리기, 그림책 만들기, 그림 그리기, 영어로 진행되는 일러스트 그리기 등 다양하다. ‘커피와 인문학’ 등의 주제로도 강사 초청 강좌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많은 문화적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 대상의 네 컷 만화 그리기는 다들 즐겁게 참여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인기에 힘입어 다음에 성인 대상으로도 진행했는데 어른들도 정말 좋아했다.

동아리는 현재 1개의 독서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2주에 한 번 모여 독서한 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데 동아리가 더 생길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부모의 고충을 듣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들의 독서동아리와 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해요. 동아리를 통해 부모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접하겠죠. 그러면 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도 도움을 주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소풍 같은 휴식과 만남의 장으로

담소는 도서관 운영에 봉사와 열정을 가지고 지속해서 노력하며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용자들이 행복함을 느끼며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운영진도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도서관은 이웃들이 언제든지 모여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보드게임을 즐기는 활기찬 분위기를 지향한다. 간혹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 조용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덕분에 주민들은 편안하게 쉬며 독서하고, 소풍을 즐기는 마음처럼 이용하고 있다. 운영진들은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공간이 되고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담소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고 성장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지역사회의 소통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더욱 많은 사람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라보 작은도서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최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다양한 문화공간이 많은 이곳에 나이, 문화, 계층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머물러 가는 문화사랑방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가족 단위로 방문하고, 주말에는 다른 지역주민과 젊은 청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예술 작은도서관을 찾아가 봤다.



운영

수 ~ 토 10:00~18:00
(월, 화, 일 휴관)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성수동2가) 헬로우뮤지움 2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어린이도 이해하기 쉬운 그림책으로 접하는 예술 세계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에코미술관 '헬로우뮤지움'은 많은 사람이 예술과 그림책을 가까이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라보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도서관 명 LABO는 Library of Art Book의 철자를 따온 것으로 독보적인 활동을 구상해나간다. 예술 도서에 집중해 서가를 구성한 서울 성수동의 문화센터로, 주로 그림책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책들을 활용해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한다.

라보는 현대미술 작품과 그림책 등 예술성이 높은 모든 도서를 아울러 예술책으로 본다. 예술 관련 도서인 아트북, 빅북, 팝업북을 집중해서 구성해 현재 1천 3백여 권의 장서를 보유 중이다. 도서관은 주로 미술관 교육팀원 1명과 구은세 어시스턴트 북큐레이터가 담당한다.

“그림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어요. 미술관 비전의 키워드인 '자유, 환경, 본성 존중, 평등, 인내'와 연결된 '놀이, 사랑, 에코, 나눔, 세계' 5가지 주제를 책등에 라벨을 붙여 배치하죠. 아이들은 이 책들을 통해 예술 감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5가지 주제와 연관된 북큐레이션을 매월 진행한다. 오는 6월은 해양을 주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해양 쓰레기 관련 도서를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예술작품으로 꾸며진 공간이 특징인데, 그림책과 현대미술을 연결 지어 감상할 수 있어 예술 체험의 폭도 넓다. 아이와 들른 부모님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전시된 예술품을 보고, 아이들은 그림책을 읽으며 각자 힐링을 얻는다.

열람실과 화실, 작가 전시실이 공존하는 복합공간

현재 크게 열람실 2곳과 화실, 전시실,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공간을 백분 활용해 다채로운 예술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전으로도 알차게 꾸미고 있다. 개인전은 꾸준히 진행 중인데 그 방법은 '작가 중심의 커뮤니티'에 있다.

“그림책 작가들이 주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작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속해있죠. 소통을 원활히 이어가며 라보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자주 참여해줍니다. 라보가 작가들의 소통창구이자 활동 장소가 된 거죠.”

메인 공간에 있는 서가는 팝업북, 그림책 원서, 손전등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책, 원석이 들어있는 책 등 신기한 도서가 가득하다. 이런 책들로 작가와 함께 그림책 감상하는 워크숍, 그림책 연계 미술 수업, 그림책협회와 연합한 아티스트 마켓과 콘서트 등 여러 활동과 동아리를 운영한다. 아직은 아이들 대상의 활동이 대부분이지만 성인 대상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최근에 야외에서 식목일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림책 한 권을 읽어주고 직접 흙을 만지며 화분을 꾸며주는 활동이었죠. 아이들 대상이었으나 보호자들도 함께 진행했는데 다들 즐거워하셨습니다.”



성수동 지역주민 넘어 모두의 문화예술 체험장으로

도서관과 미술관을 이어주는 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라보는 유관 단체들과 협업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언제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림책이 아동도서라는 경계를 허물어 성인들도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근 카페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계획 중이다.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성수동 주민이 아니어도 집에서 그림책을 감상하고 문화예술 체험을 가능하게 해 작은도서관이 갖는 공공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 중이다.

“어린이만 들러야 한다거나 그림책만 읽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라보 작은도서관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책도 읽고 현대미술도 관람하며 편안히 머물다 가는 자유로운 독서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SNS와 입소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은 라보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그림책을 통한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알찬 활동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도서관이 지역을 품다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내부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를 위한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들과의 문화 교류를 이어가는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은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열정 가득한 장소다.



운영

화 ~ 토 10:00~18:00
(월, 일 휴관)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31
홈플러스 2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알록달록한 색채로 어린이 눈길 사로잡는 공간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은 청소년에게 늘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국제 교류와 도서관 운영을 목표로 하는 (사)전주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13년에 조성했다. 김해영 대표가 뚜렷한 목표를 갖고 동지를 틈 이래, 청소년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나 책을 함께 읽으며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도서관 이름을 지을 당시 운영위원이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개구리 울음 소리처럼 들려 개골개골로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용됐다. 이용자들이 어린이도서관과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다.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꾸며놓은 내부에 개구리 캐릭터를 곳곳에 붙여 친구 집에 놀러 온 듯 아늑한 분위기를 풍긴다. 대형마트와 같은 건물이다 보니 공간이 270평 정도로 넓은 편이고, 실내 식물을 많이 배치해 쾌적하고 평온한 느낌을 준다.

서가 공간 외에도 강의실과 세미나실 한 곳이 마련돼있어 독서와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도서관에 들러 여러 의견을 나누고 건강한 담론을 나누며 큰 위로를 얻는다.





나이 불문 취향 맞춤형 프로그램 가득

도서관 인근에 초등학교 5곳이 있어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방문한다.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도서를 제공해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근교 고등학교 도서관은 도서 출판에도 참여했으며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용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원활동가로도 참여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등 자율적인 활동 참여가 많죠. 이런 이용자와 유치원생이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며 찾아왔을 때 보람을 느껴요.”

개골개골의 이용자는 유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하다. 장서도 4만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책이 많은 만큼 관리에 신경 쓴다. 유아, 아동, 성인, 만화, 여행 5개 파트로 서가를 분리했다. 신간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별도로 구분하고, 도서 구매 시 이용자 희망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각종 검색사이트 순위 등을 참고한다.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코로나 이전에는 도서관에서 1년 동안 활동한 주민들의 글을 담은 ‘개구리 방죽’이라는 책을 펴냈다. 5세부터 82세 노인까지 함께 만들었으며 엄마들이 6개월 동안 제작한 그림 동화도 곁들여 모든 세대가 볼 수 있는 책으로 탄생시켰다. 특히 2019년 전주시 사립작은도서관 특화지원사업에 선정돼 그해 봄, 전주에 살면서 전주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매주 독서 모임을 하는 ‘큰샘수필문학연구회’ 회원의 수필, 유연문학회 회원들의 시를 한데 엮었어요. 코로나로 멈췄었지만 반응이 좋아서 성인 수필집 ‘삼삼오오’, ‘독서동아리기록장’ 등 다시 이용자의 글을 모아 도서 출판을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죠.”

일주일간 5천 명이 참석한 파종류전시는 특히 인기가 좋았다. 현재는 로봇 탐구와 5년 동안 매주 진행된 성인 대상의 수필반, 아이와 부모가 같이 진행하는 식물과 대화하기 등 주민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활동으로 완산구 일대를 독서문화가 넘실대는 장으로 만들고 있다.

주민과 함께 빛을 발하는 지역 문화광장으로

도서관은 넓은 공간을 적재적소로 배치해 쾌적하고, 일주일을 풍성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덕에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돼가고 있다.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조용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꾸준히 담아내는 곳이다.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이 지난 10년 동안 완산구의 문화광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운영자의 열정, 주민들의 관심 덕분이다. 관장과 사서가 상근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자원활동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도서관의 앞날은 밝다.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그 도서관이 갖는 특성과 인프라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래 운영자분들께 너무 이상적인 도서관을 생각하지 말고, 작아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곳으로 만들라고 전하고 싶어요. 도서관은 이용자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완산구의 문화광장으로 주민들과 만들어갈 예정이라는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처럼 언제나 사람 냄새 가득한 공간으로 빛나주길 기대해본다.



책돌이도서관

책돌이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특화 활동으로 독서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독서를 통한 성장과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며, 좋은 책과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고 마을 주민과 상호작용하고자 노력한다. 활발한 독서 활동을 주도해 주민 모두가 찾는 맞춤형 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운영

월 ~ 토 11:00~17:00
(일 휴관)

주소

광주시 북구 우치로 235 (오치동)
2층, 3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마을에 스며든 오색찬란한 독서문화 활동

책돌이도서관은 어린이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사)어린이도서연구회의 광주지부 부설도서관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지리적인 제약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에 2008년에 직접 도서관을 만들었다. 지금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특화로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이름은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상징이자 마스코트인 책돌이에서 따왔다. 책과 거래,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 성장, 책 읽는 맑은 눈을 상징하며, 운영 목적과 가치를 담고 있다. 광주 북구 오치동은 초등학교 3곳이 있고, 생계형 맞벌이가정 비율이 높아 초창기에는 어린이가 주요 이용자였지만, 최근에는 청소년과 어른들이 많이 찾는다.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만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해요. '날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그중 하나죠. 어린이부터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책을 읽어주는 활동으로 평생 독자를 만들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에요.”

또한, 특화 주제에 맞춰 그림책을 포함한 다양한 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재 1만 3천 권이 넘는 장서 중 약 6천 권이 그림책이다. 책등에 별치기호와 주제별 큐레이션을 라벨링하고, 서가 곳곳에 작은 전시도 연중무휴로 진행한다. 어린이책 정보를 풍부하게 하려고 그림책에 주제어를 입력하고 있다.

도서관 2층은 서가와 활동 공간을 나눠 헌옷 되살림 운동,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지구자원 구출센터, 책 전시가 이뤄지는 갤러리 룸, 프로그램 작품 전시 등 다양하게 진행한다. 3층은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열람 공간에서 회의와 모임, 강의를 이뤄지고, 만화 서가가 구성돼있다. 프로그램에 사용한 보드게임도 비치해 독서와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행사들로 다채로운 문화 놀이터

책돌이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도서관 주관의 독서문화제와 작은 문학제, 독서캠프, 그림책 창작전을 진행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현재 '책읽어주기', '손으로만드는세상', '공작부인', '책과함께 보드게임' 등이 있으며, '청소년도서관학교'라는 집중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방학에는 여러 가지 독서캠프도 개최해 학생과 부모들 모두가 즐기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독서 편의성을 높인다. 독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앱 '책꽂이5.0'을 도입해 모바일로 도서 대출 서비스, 희망도서 신청, 대출 연장, 추가 이용 안내를 제공한다. 도서관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로도 이용자와 정보를 제공하며, 도서 추천과 리뷰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도서관이 인정받을 때 큰 보람을 느껴요. 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 수와 같은 숫자가 아니라 저희가 소장한 책, 기획하는 프로그램, 교육 등 책돌이의 가치가 인정받을 때 정말 뿌듯하죠.”



주민 모두가 찾는 마을 맞춤형 도서관으로

책돌이는 책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들은 매주 활동해 도서관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장서 선택에는 장서의 수준을 중시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자 한다.

“좋은 책을 놓치지 않으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책을 찾아 책돌이를 방문하는 이용자분들도 계시고요. 활동가들 모두가 책에 진심인 사람들이라 도서 관리와 이용자 응대에 최선을 다하죠. 대화를 통해 이용자 맞춤 책을 추천해주고 좋은 후기를 들었을 때 도서관 활동가의 존재 이유를 느껴요.”

독서를 통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연대감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독서 교육과 문화행사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는 책돌이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우리 운영진들은 ‘책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스며들기’라고 자주 말합니다. 도서관의 방향성이자 목표죠. 언제나 반갑게 사람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환대의 공간이 되고자 해요. 마을과 주민 맞춤형 도서관이 되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좋아하는 도서관이자 마을과 책을 잇는 공간이 될 거예요.”



시루작은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에는 각종 동아리의 활동 공간 마련을 계기로 문을 열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해가는 작은도서관이 있다. 그곳에 가면 개관 전부터 활동한 모임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지역의 다양한 만남을 견인하는 시루작은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운영

월 ~ 금 09:00~19:00
토 10:00~18:00
(일 휴관)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1,
(춘의동) 3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부천의 역사, 문화, 향토를 기록하다

서울 지하철 춘의역 5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시청으로 향하는 사거리에 작은 간판이 눈에 띈다. 부천고등학교 동창회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시루작은도서관으로 '부천향토연구회 공시루'와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가 부천고등학교 총동창회와 함께 운영한다. 지역공동체와 손을 잡고 부천의 역사, 문화, 향토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곳이다.

시루의 첫 시작은 오산 관장이 부천의 지역신문인 공나물신문 발행인으로 '부천이야기'를 지면에 담으면서 만든 '부천향토연구회 공시루' 동아리다. 오 관장은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 전문가로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 공나물신문 구독자와 시민들이 부천지역을 좀 더 알자는 취지에서 공시루를 만들었어요. 부천의 마을 이야기가 담긴 '고리울 가는 길'과 '대장마을 가는 길' 단행본 2권을 출간하는 등 4년 연속 주민 제안사업에 선정돼 '우리 고장 옛 이름 지도'를 제작하고, '공정여행 기획자 과정'을 운영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죠.”

공시루는 활동 성과 자료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던 중 부천고 동창회를 만나 부천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19년 6월에 문을 열었다. 개관행사로 도서관 활동을 미리 볼 수 있는 소소한 특강, 전시회, 축제를 기획했다. 논술, 명상, 심리, 역사, 경매, 약초, 드론 등 다양한 영역의 특강과 동아리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을 1주간 진행했다. 각 동아리의 활동도 소개해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는 약 15개의 다채로운 주제의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정기적인 모임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수를 자랑한다. 자연스럽게 주민들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은 도서관은 동아리에서 학습을 유도해 부천시 평생학습의 중심으로도 성장 중이다.

동아리 활동이 좋아 삼삼오오 모여드는 지역 터전

시루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맞닿은 경계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성인 학습동아리나 단체가 대해 이용하고, 경기도교육청 위탁, 특별교육 공간으로 활용돼 성인과 중고생의 이용 비율이 높다.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교육활동 ‘경기꿈의학교’를 진행해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학업에 몰두할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학습하고 책도 읽으며 즐겁게 지낸다.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토론 수업과 예체능 활동하는 ‘AI’ 등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구상하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정해진 시간마다 도서관을 대여해주는 데 꼬박꼬박 참여해서 부듯할 따름입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로 구성돼있는 약초 동아리 ‘약시루’, 탄소중립, 기본소득, 현명한 투자자들의 모임으로 북적이다. 특히 격주로 일요일 아침 7시 30분에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독서 모임 ‘독서지향’은 30여 명이 회원으로 있을 만큼 인기가 좋다. 평일에 만나기 쉽지 않은 직장인들이 일요일 오전에 만나 자기개발서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노인복지관에서 연필로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할 때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복지관 특성상 초급 수준으로만 진행하니 다음 단계를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연필화 동아리를 만들었죠. 강사도 직접 초빙해 시루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간과 강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시루에는 모임이 이뤄지는 공간이 충분하다. 활동실 대여와 도서관 전체 대관 둘 다 가능하며, 상담실도 마련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을 받을 만큼 교육과 상담에 일가견이 있는 오 관장이 담당한다.

든든한 지원군과 더불어 성장하는 공간을 꿈꾸며

주민과 학습공동체를 위한 공유공간을 목표로 삼는 시루는 공동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유도하고, 활동 중인 모임에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력도 고민 안 할 수 없지만, 최근에 법원 공무원직을 퇴직한 이태호 관장을 공동관장으로 영입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북소리와 학생들의 자원봉사도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북소리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서관에도 힘을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올해 3월이면 입주한 건물의 재건축으로 이전하는 시련이 있지만 이걸 발판 삼아 더욱 안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 예정이다.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남의 장이 된 시루 작은도서관이 계속해서 다양한 모임을 유도하는 공유공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작은도서관당나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최근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가재울뉴타운이 조성되며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졌다. 지역 세대 간 연령 분산이 크게 나타나 세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곳에 폭넓은 나이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유도해 지역공동체를 끈끈하게 만들어 가는 작은도서관이 있다.



운영

월 ~ 금 10:00~17:00
(토, 일 휴관)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53,
(남가좌동) B1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문화공간

도서관 인근에 집중돼있는 고령인구를 위한 독서문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득규 관장은 남가좌동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작은도서관당나귀를 조성했다. '당나귀'는 당신과 나의 귀한 인연이라는 의미로 여러 만남을 유인한다.

“도서관을 조성 할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어요. 도서관 한쪽 면이 통거울이고, 환기가 잘되도록 환풍기에 신경을 많이 썼죠. 덕분에 요가, PT, 장구, 민요, 뜨개질, 그림책 등 연령대별로 다채롭습니다.”

당나귀는 지하에 자리 잡고 있지만 공간 구성에 주의를 기울인 덕분에 주민들 요청 위주의 각양각색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 연말에 퍼스널 컬러를 주제로 한 문화강좌는 참석인원은 많지 않았으나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이외에도 역사 교실, 아나바다 등을 진행했으며 어르신 대상의 노래 교실, 청장년 대상의 디지털노마드, 학부모 대상의 뜨개 교실, 드립커피 교실을 계획 중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오늘 잘 왔다’라고 말씀해주면 도서관 운영하는 데 큰 보람을 느껴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폐강되거나 운영보류 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최근까지 언제 재개되는지 많이 문의하셨어요.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많은 활동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강사는 지역주민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와 소개, 섭외, 지역 생활 애플리케이션 공지를 통해 구한다. 동아리 등의 활동 홍보도 비슷한 경로로 진행되는데 프로그램 참여하던 사람이 동아리도 하게 되고, 동아리 참여하다가 도서관에 들러 책도 읽는 선순환이다.

주민들과 소통의 장이 되는 독서 모임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청년과 중장년층인 만큼 아동 도서보다 성인 도서를 주로 갖춘다. 어린이부터 청장년, 어르신들의 관심도를 반영해 신청 도서 위주로 구비한다. 최근에는 한국잡지협회 무료 잡지 배포 서비스로 다양한 장르의 잡지를 비치해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당나귀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자 대부분이 도서 대출과 프로그램, 동아리에 참여하고자 방문한다. 그만큼 주민들끼리 많은 만남이 이뤄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독서 모임이 있는데 폭넓은 나이대의 참여를 위한 모임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밴드에 60여 명의 인원이 있는데 매달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행하고 있어요. 매월 1회 토요일마다 진행하는데 실제 활동 인원은 15명 내외죠.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참여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당나귀의 독서 모임은 다른 지역 사람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 만점이다.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임 진행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허다하다. 이용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실감해 요청받은 만큼 앞으로 더 다채로운 독서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도서관은 이 관장이 소속된 단체인 ㈜바하마브리즈코리아가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 예산 대부분을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 당나귀는 현재 5명의 운영위원회가 있고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관장이 마을 활동하면서 인연 맺은 주민들이 도서관 운영진이자 자원활동가로 참여해 큰 힘이 되고 있다.

운영진들은 도서관에서의 독서문화 공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문화 활동을 주도하기 위해 운영 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통해 도서관과의 연계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대 갈등 완화뿐만 아니라 복합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작은도서관 당나귀.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진행해 지역주민들을 이어줄 도서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세대 불문 다채로운 이야기가 샘솟는 책 어울림터

기쁨이 자라는 작은도서관

기쁨이 자라는 작은도서관은 2012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지어져 주민들 간 세대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마을공동체 공간이다. 지역민 곁을 11년간 굳건히 지켜오며 작은도서관만이 지닌 색다른 이야기가 샘솟고 있다.



운영

월, 목, 금 13:00~21:00
화 9:00~18:00 수 9:00~21:00
토 10:00~18:00, (일 휴관)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9길 25,
(종암동) 상가 202호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취향을 담아 특색으로 살려낸 도서관

도서관이 위치한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은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많고 노인 인구가 다수 분포한 곳으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관했다. 설립 때부터 운영을 맡아온 안혜영 관장은 기존 주 이용층인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연령층을 확대해 운영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를 이끌어 주민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에 참가해 삶의 활력을 얻는다.

"함께 책을 읽고 성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아이들과 학부모가 주로 이용하고 남녀노소,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편안히 쉬어가는 공간이죠."

내부는 성인과 어린이를 나누어 열람실을 구성했다. 반투명한 문으로 구분되어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쾌적한 독서 공간을 제공한다. 현재 6,300여 권의 장서로 어린이 그림책과 성인 문학, 미스터리 도서를 중심으로 알차게 구성돼있다.

여느 작은도서관과 다르게 미스터리 도서가 서가 한 편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안 관장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장서뿐만 아니라 미스터리 프로그램과 동아리도 활발하다.

"미스터리 도서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미스터리 북클럽 동아리는 책을 장르별로 계보에 맞춰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죠. 저를 포함해 10명이 있는데 이 장르는 애독자가 많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스터리 관련 작가를 초빙한 강연회와 방학 때 어린이 대상의 방탈출 프로그램 '추리 게임'을 1박 2일로 진행해 마니아층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의 이야기로 책을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곳

도서관 중앙에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책을 전시한 서가가 눈에 띈다. 여기에 꽂힌 장서는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와 상상을 표현해 그림책으로 펴낸 도서들이다.

”그림책을 읽다 보면 매력에 빠져 나도 한번 작가가 되어보고 싶은 마음이 쑥쑥 자라나죠. 그 마음을 담아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 작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매년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인기와 만족도도 높아요.“

성인과 어린이로 구별해 5년째 진행 중인데 각각 30권과 40권 이상, 총 80여 권이 출판됐다. 이맘때면 빨리 시작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만큼 아이와 청년, 어르신들에게까지 사랑받고 있다.

”납본을 마치면 도서관에 정식으로 도서 등록하는데 아이들이 대출해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성인 중에는 매년 책을 내는 걸 목표로 삼는 분도 계시죠. 완성도가 높은 책은 출판사 제의로 그림작가를 붙여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활동하다 작가로 첫 작품을 유통하게 된 경우가 생겨날 정도로 적극적인 주민들이 많다. 주민들 요구에 발맞춰 우쿨렐레 앙상블 동아리와 토탈공예, 재봉틀, 책놀이 수업, 글쓰기 교실, 그림 공방 등 다채롭게 일주일을 채우고 있다.



또한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도서 3권과 활동자료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주기적으로 빌려주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응이 좋았던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전통 놀이는 도서관 바로 옆 노인복지관 이용자들도 유입되도록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토탈공예 재능기부 강사로도 경력을 쌓아서 취업한 이용자도 있을 만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지향하는 도서관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지속가능한 '팝업도서관'을 꿈꾸며

사람의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끼는 운영진들은 앞으로도 더불어 발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올해부터 지속 가능한 도서관을 위한 실험으로 '잇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해 팝업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팝업도서관은 도서 바자회, 에세이 작가 도전기, 독서 모임, 문화공동체, 요일 관장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지속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먼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들목가족도서관

나들목가족도서관은 더불어함께교회와 지역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도서관을 제공하고 자 서울 동대문구에서 2008년 12월 25일에 설립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곳으로, 그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담은 10주년 기념 백서를 발간하며, 주민들에게 작지만 건강한 도서관으로서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운영

화 ~ 토 10:30~18:00
일 13:00~18:00
(월 휴관)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1,
(준의동) 3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한 문화 플랫폼

첫 시작은 더불어함께교회와 지역사회의 열정적인 지지로부터다. 운영진들은 도서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책과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갖은 노력했고, 목표한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협업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그중 장영두 사서는 현재 주도적으로 도서관을 이끌어가고 있다.

“도서관 이름인 나들목에는 사람과 책,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겼어요. ‘내 집’ 가까이에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다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죠. 이용자들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공간 이랍니다.”

도서관 인근은 아파트와 학교, 맞벌이가정이 많은 덕분에 부모와 함께 방문하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생이 주로 이용한다. 이들을 위해 장서에 문학과 그림책, 육아 책 비중이 높으며, 도서관 바로 옆에 북카페 공간도 마련해냈다.

북카페에서는 음료를 마시거나 보드게임을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프로그램 진행 중일 때 대화와 대출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북카페 안쪽 도서관 공간에는 독서와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더 안쪽의 조용한 공간에서는 독서뿐만 아니라 수업하기도 한다. 바리스타 교육도 진행할 수 있어 알차게 이용하고 있다.



도서관 네트워크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나들목은 동대문구의 여러 동네가 맞닿는 지점에 있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을 구성한다. 보드게임을 활용한 프로그램, 슬라이드 필름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극장, 동네 극단과 콜라보로 진행하는 토요공연, 식이·운동 건강 소모임 '바디챌린지' 등 시의성 맞는 콘텐츠를 진행한다. 많은 봉사자 수를 활용해 항상 새로운 활동을 도전한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더욱 도전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 주도로 교육청, 구청과 함께 동대문구의 공립, 사립, 학교 도서관 100여 개관이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죠. 서울시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책 읽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도서관들이 모여 2015년부터 시작된 '동대문구 도서관 네트워크 협의회'는 도서관 탐방프로젝트, 북페스티벌과 같은 협력사업을 구 단위로 함께 활동하다 보니 다양하고 방대한 활동을 진행해 지역민들도 환호하고 있다. 네트워킹이 시도로 확대되면 규모가 더욱 커져 도서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삶에도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매년 동대문구 곳곳의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들러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탐방프로젝트를 진행해요. 8년 넘게 진행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점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도서관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엔 100곳이 함께해서 5만 6천 회의 도장을 찍었어요.”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도서관으로

나들목은 온라인 문화의 확산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형태의 도서관 탐방프로젝트 시즌2를 준비 중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책과 사람을 이어주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고자 방법을 찾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와 독서토론의 장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미래에는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콘텐츠와의 접목, 지역문화와의 융합 등을 통해 지역의 중심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바람이다.

“도서관의 노하우와 경험을 담아낸 10주년 기념 백서를 출간했어요. 10년을 돌아보고자 사서들 위주로 진행했는데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요.”

나들목가족도서관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사회와의 깊은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활발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여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미래를 기대해본다.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서울 용산구에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거주율이 높아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살려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통해 언어를 즐겁게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는 독서문화 공간이자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서관을 직접 찾아 이야기를 들어봤다.



운영

월 ~ 금 10:00~19:00
토 10:00~17:00
(일 휴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3가길 21-7,
(용산동2가) 2층

유형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문화 활동으로 키우는 영어 소통 능력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서울 용산구청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영어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전문 도서관이다.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며 독서를 통한 영어 흥미 제고와 영어 능력 신장을 유도한다.

초중학교 교과목에 영어가 있고, 도서관 인근에 초등 3개교가 있는 만큼 어린이와 학부모가 많이 이용한다. 어린이를 특화로 내세워 영어와 친해지기 위한 영어 주제의 다양한 월별 행사를 진행해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만 5천여 권이 넘는 장서가 모두 영어 원서이다. 양질의 영어 주제별 장서를 단계별로 구비하고, 타 도서관에서 찾기 힘든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자주 찾을 정도로 장서 구성이 자랑거리다.

현재 송수진 관장, 사서, 원어민 강사와 한인 강사, 환경 관리자 5명이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영어와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도서관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특히 송 관장은 2017년부터 함께해 영어 독서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영어 사용을 일상화해 이용자의 회화 능력을 배양하고자 관내에서는 주로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교육은 원서로 수업해요. 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이 큰 장점이지요. 아이들이 학습 단계별로 다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두 마리 토끼 잡는 영어도서관

용암의 목표는 독서를 통해 실제적인 영어 사용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반은 정독, 4대 영역(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다독, 토론 기반 4가지 중심으로 설계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만 구성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거기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죠. 학생들이 책을 읽고 마인드맵을 작성해 발표하는 활동을 도입했는데 읽고 쓰기 실력이 확 늘어나서 부듯합니다.”

영어교육 격차 해소와 영어책 읽기, 다독을 병행한 자기주도 학습을 활성화하고, 전자도서와 독서퀴즈 활용을 위해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년간 국내외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테스트한 덕분에 낮은 레벨 학생들도 쉽게 접근해 독서 흥미를 고취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다.

다양한 활동을 위해 외부 강사도 초청할 정도로 문화행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매월 진행되는 행사 외에도 영어 체스, 영문법 특강, 논픽션 읽기, 토요 시네마 등 다채롭다. 연령별로 신장시켜야 하는 필수적인 능력을 고려해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영어독서를 장려하는 행사로 영어책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한다.

도서관은 모국어가 가능해야 외국어가 이해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문해력을 같이 발달시키는 행사를 구성한다. 우리말 독서 교육과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을 해결할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영어는 수단이고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많은 책을 이용자가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언제나 노력한다.

“조부모님들도 참여했던 학부모 영어 신문 읽는 수업이 반응 좋아서 동아리로 발전했어요. 선생님들 모임과 그림책 수업 연구 동아리가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었는데 다시 진행할 거예요. 성인 대상 활동도 다채롭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어 사교육비 걱정 없는 삶의 문화충전소로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끼며, 자주 들러서 책장을 넘기고 싶은 복합 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원서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언제든, 누구든 영어책을 쉽게 접하고 큰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체계적이고 질 높은 영어 독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 중이며, 많은 사람이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한다.

“교육에서 만나게 되는 주의력 결핍이나 난독증으로 읽기가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또한 영어 독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우리 도서관에 들려주세요. 언덕길을 올라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느리지만 큰 행복, 시니어 문화의 중심

능내골실버작은도서관

경기도 시흥시의 작은 동네인 능곡동에는 능내골실버작은도서관이 있다. 지역의 건강한 독서문화 환경과 소통 공간을 목표로, 어르신과 주민들이 함께 독서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니어가 주도하는 도서관이라 느낄 수도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활기찬 도서관을 만든다.



운영

월 ~ 금 09:00~18:00
토 09:00~13:00
(일 휴관)

주소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곡로 214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유형

공립 작은도서관



시니어 맞춤 운영으로 피어나는 독서문화의 꽃

능내골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시흥시의 유일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 2011년에 개관한 후부터 지역주민들과 문화를 나누는 소중한 장소다.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책을 읽고 소통하는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와 지식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능내골은 지역 명칭에서 따와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함축적으로 담았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원활동가가 탄탄하게 조직됐다. 특히 복지관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고, 많은 직원이 관심을 두고 참여해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된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느새 회원이 1만 4천 명을 넘어섰죠. 시니어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큰 글자 도서와 다양한 신간 도서를 중심으로 7천 여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실버도서관이라는 이름대로 시니어들의 선호와 편의를 고려한 도서와 돋보기 기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서 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원활동가들은 주로 시니어로 대출과 반납, 상호대차 업무를 담당한다. 조금은 느릴 수 있어 미리 이해를 바란다는 의미로 ‘느린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 덕에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소외 어르신 없는 새로운 문화 경험 선사

늬내골이 자리한 건물의 1층은 시니어가 근무하는 카페로, 2층은 강의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서관과 연계해서 운영한다. 90명까지 참여하는 독서골든벨 같은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때는 옆 건물인 노인복지관 본관까지 이용한다.

특히 '북아트' 프로그램은 책으로 꽃을 만드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지역 행사에 전시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촬영 영상을 올려 관객들과 소통도 진행했는데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책과 예술을 결합한 색다른 문화 경험을 체험할 수 있어서 모두가 좋아한다.

주민과 시니어들이 소외되지 않고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한다. 연 2회 이상 테마를 정해 저자특강을 진행하는데 2022년에는 ESG경영을 반영해 환경과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고금숙 작가의 책을 활용해 환경에 관한 관심과 친환경 실천 생활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이외에도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NIE교육, 자서전에 대해 교육 후 직접 제작하는 포토 자서전, 그리고 시니어동화나누미, 다독왕 선정, 독후감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변화를 불러오는 어르신 자아실현의 장으로

늬내골은 타인과 관계 맺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용하고, 봉사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는 정이 넘치는 곳이다. 운영진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주도하며, 특히 늬내골의 1호 회원인 이미지 이용자는 도서관 개관 후 봉사자 모집 글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바로 지원했다. 그 뒤로 자원활동가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활동하고 있다.

“도서관 활동가는 봉사도 하면서 책도 읽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 쉽 없이 계속 참여할 수 있었죠. 지금도 저에게 배우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제가 힘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이처럼 봉사를 통해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을 이룰 기회가 되어주는 등 주민과 시니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 앞으로도 어른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따뜻한 이웃을 곁에 둘 수 있도록 돕고, 사회와 연동돼 이웃과 학교, 단체들을 가깝게 이어주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

운영진은 개개인이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것과 모두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시니어들로부터 존경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 운영진들과 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늬내골실버작은도서관은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주민들은 독서와 소통을 나누고 있다. 이런 따뜻함이 앞으로도 지속돼 더욱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본다.

Book Bridge 작은도서관

작지만 큰 꿈을 키우는 'Book Bridge 작은도서관'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과 문화 교류의 기반이 되고자 시작했다. 이제는 다문화 사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며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운영

월 ~ 금 09:00~19:00
토 10:00~18:00
(일 휴관)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1,
(준의동) 3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다언어와 문화의 융합 거점

일본 오사카 출신 하시모토 아야코 관장은 2000년 한국인과 결혼해 Book Bridge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도서관 명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라는 의미를 담아 지었는데, 이름대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다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사회를 잇고 있다.

“첫 시작은 2005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그림책을 구매하던 과정에서였어요. 이듬해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만난 그림책 가이드의 조언을 듣고 아이들과 그림책을 즐기는 경험이 엄마와 아이의 유대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다언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은 ‘한국도서관친구들’의 지원을 계기로 2014년 자택에서 가정 문고 형태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재는 6,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해 이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이중언어 습득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모든 책이 일본어 원서라는 것은 은평구 내 타 도서관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언어는 사용 안 하면 잊어버리는데 두 언어 다 잊지 않도록 이중언어 환경에서 아이들이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일본 문화나 계절 행사를 다룬 동화책들도 많이 소장하고 있어 엄마와 공감할 수도 있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민자 가정이 도서관의 주 이용자이다. 녹번동은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주중에 약 20여 명 정도가 방문하고 주말에는 더 많이 찾아온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서로 육아와 타국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위로받는다.



일본 문화 활동으로 소중한 만남이 이뤄지다

정기적으로 일본 문화를 경험하는 활동을 진행하는데 일본의 연간 기념일인 오쇼가츠, 히나마츠리, 코도모노히, 타나바타, 오봉 등에는 연관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계절곶터'는 계절별 일본 세시 풍속을 주제로 한 만들기 키트를 제작해 나눠 준다. 일본어 원서와 일본어로 진행되는 책모임도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장서도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선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적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고 있어요.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죠. 아이들의 이중언어에 대한 걱정도 풀고, 책을 수단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장소가 되고자 합니다. 소통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부모들은 육아 하면서 힘든 점을 나누며 힘이 되고, 아이들은 언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일본어 전문 어린이도서관을 추구하다 보니 도서관 블로그와 카페를 보고 멀리서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방문한다. 자주 못 오는 분들을 위해 도서를 한 가족당 25권을 3주 동안 대출할 수 있고, 일주일 연장도 가능하도록 운영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도서관에 애정이 생긴 이용자들이 자원활동가로도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 현재는 10~15명의 자원 활동가가 그림책 읽기와 도서관, SNS 운영을 도와줘 원활하게 운영된다.



언어 교육의 장소를 넘어 화합의 다문화센터로

Book Bridge는 다문화, 이주민 가정들에는 타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책을 접하고 문화를 잊지 않게 해준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소중한 공간이다.

“더욱 많은 다문화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문화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다문화 가정을 지원과 언어 습득을 돕는 역할을 강화해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는 곳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도움 되는 도서관으로 남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활동들을 따뜻한 눈길로 봐주는 덕분에 지금까지 무사히 운영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국 가정도 도서관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장소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고민 상담한다는 장점을 살려 전문적으로 상담사나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도 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과 여러 지원으로 독서문화와 다문화 이해의 기반이 되는 곳으로 남고 싶다는 Book Bridge작은도서관은 현재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더욱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아이와 가족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별별창작꿈터 봉현작은도서관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위치한 별별창작꿈터 봉현작은도서관은 창작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이색 공간이다.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하지만 특히 유아와 어린이에게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

월 ~ 금 09:00~18:00
토 10:00~17:00
(일 휴관)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255-7
(봉천동) 1층

유형

공립 작은도서관



상상력을 실현하는 모두의 놀이터

봉현작은도서관은 주로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2019년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특화 주제를 설정해 도서관 운영을 차별화하고자 했다. 리모델링 후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한 메이커스페이스 특화로 운영을 시작했다.

2022년 4월부터 도서관을 맡은 장은혜 사서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담당하며 3D프린터운용기능사와 3D펜 자격증을 취득해 기본적인 기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에 관심이 있어 창작활동을 하던 중 도서관을 알고 지원해 연을 맺었다. 도서관의 이름 '별별창작꿈터'는 창작 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봉현'은 열정과 지성의 전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현동은 관악구에서 인구수가 많고, 18세 이하 주민의 인구 비율이 높은 편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어 유아 장서의 이용이 활발하다. 관내 초등학교에 학급도 많아 유아동이 주 이용자다. 독서, 대출, 프로그램 참여 등을 주로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덕에 참여율이 높다.

도서관은 메이커스페이스실과 일반열람실로 나뉘어 있으며, 주로 메이커스페이스실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이 이뤄진다.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돼 3D프린터, 비닐커팅기, 3D펜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디지털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처음 장비를 둘 때는 다들 신기해서 친구도 데려오고 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신기해 하시죠. 특히 올해 진행하는 로봇 리쿠는 관악구청 스마트정보과의 지원으로 대화, 동요 가창, 동화 구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톡톡 튀는 새로운 경험, 메이커스페이스로 만나다

장서는 일반 장서와 STEA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특화 도서들로 구성되었다. 메이커스페이스실에 특화 도서가 몰려있어 독서 후 책 내용과 알맞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최신 정보기술을 접하고, 가정에서 구비하기 힘든 장비를 이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주민들의 발길을 이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인 '이야기가 있는 코딩'이 유독 반응이 뜨거웠다. 코딩 지식을 습득한 후 독서와 코딩을 결합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책 속 내용으로 자신만의 가상 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 창조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었다. 연말에 온라인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라 참가자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의 공모 공지를 보곤 우리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어요. 공모 대상이 공공도서관이었지만, 담당 부서에 문의해 허락받은 뒤 신청했죠. 용기를 낸 덕분에 선정되고, 참여자 반응도 정말 좋아서 부듯했습니다.”

장비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어린이 대상으로도 매주 3D펜 교육을 진행했다. 3D펜 등의 장비를 이용한 체험은 어린이들이 특히나 즐거워해 방학 동안 열심히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성인들을 위해서도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며, 앞으로는 성인 대상의 안전한 장비 활용 교육도 제공하고자 한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백분 살리고자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부족한 예산을 알뜰하게 활용하기 위해 상근직 사서 1인과 보조사서 3인이 근무 중이며, 보조사서는 파랑새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연계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자원봉사자들도 다시 모집할 예정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짝 펼치는 휴식처로

동아리는 현재 성인 대상의 동화를 읽고 독서 토론하는 정기모임 하나만 진행 중이다. 운영진들의 바람으로는 창작 동아리가 생겨 자발적인 창작 문화가 이용자로부터 확산하는 것이다. 특히 메이커스페이스 특화 활동을 많이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더욱 자발적인 창작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태 진행한 도서관 주도의 행사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해 쉬기도 하고, 지역사회 정보도 습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기관으로 만들고자 한다.

운영진들의 바람대로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별별창작공터 봉헌작은도서관. 다채로운 활동과 특화 주제와 연관된 행사를 진행하며 더욱 자발적이면서 창의적인 공간으로 빛날 앞날을 기대해본다.

우리소리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은 국악으로 유명한 종로구에서 국악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고자 2017년 12월에 개관했다. 국악을 중심으로 한 특화 도서관으로, 국악 자료 수집과 발전, 지역 국악인 네트워크 형성, 국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국악인, 지역민들과 함께 독서문화를 만들고 있다.



운영

월 ~ 토 09:00~18:00
(일 휴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47,
(익선동) 4~5층

유형

공립 작은도서관

독서, 음악, 예술이 풍요로운 공간

도서관이 위치한 국악로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악인이 거주했었다. 국악 교습소와 악기사들도 많고, 소리나 연주 등 공연하는 이들이라 이와 관련된 한복, 귀금속, 떡집과 함께 발전했다. 현재는 사라져가는 국악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우리소리도서관이 문을 열었으며, 인근 지역 국악 단체들의 거점 기관으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상호 네트워크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귀금속 가게, 떡집과 같은 도서관 인근 가게들과 협업하며, 강사 섭외에 도움받고, 서로 홍보물을 비치해주기도 한다. 여러 방법으로 국악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도서관 동아리와 행사들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우리소리’는 국악에 한정된 우리소리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포함한다. 정악, 민속악, 종교음악, 무용 음악 등에 더불어 전통음악부터 현대 창작국악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하다가 도서관 운영자로 전환한 김윤주 사서는 현재 사서 자격을 취득해 도서 기반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상업지역이라 지역 상인,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국악을 좋아하는 가족, 중장년층, 관광객 등 다양하게 이용해요. 국악에 관심 있는 분이 많아 책보다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죠. 국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용자들 덕분에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국악으로 여는 고요한 독서와 화려한 연주의 조화

도서관은 주민센터의 4층과 5층을 사용한다. 4층은 복합문화공간인 다목적실, 악기 연주하는 소리 사랑방과 국악누리방으로 구성되었다. 방음이 잘 돼 강연과 동아리, 소규모 공연도 진행한다.

“5층에는 열람실과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큰 규모의 공연도 할 수 있는 크기지만, 인근에 건물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소음 피해 신고하는 경우가 생겨 야외 공연을 자제하게 돼 아쉽죠. 아쉬운 분들을 위해 동아리와 프로그램, 특화 도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악 특화 도서관인 만큼 도서는 5천 여권이지만 CD와 LP 등의 비도서는 1천 개가 넘고, 음원도 7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전체 장서 중 국악이 30%, 일반 도서가 70%이다. 현시대는 고전음악에 관심이 떨어져 예술 향유 프로그램으로 국악에 관한 흥미를 높이고, 국악의 최근 경향에 따른 음악 활동과 자료를 잘 빠르게 서비스한다. 최근 관심사인 트로트처럼 대중적인 분야도 수서하고, 협업하고자 한다.

현재 뜨개질, 떡리학, 커피, 여행 등의 문화예술 동아리 7개와 국악인들만으로 구성된 국악 동아리 6개를 운영 중이다. 국악 동아리 ‘해금앤’은 개관 때부터 생긴 가장 오래된 동아리로 탄탄한 실력을 쌓고자 노력하는 성인들로 구성되었다. 생긴 지 1년 된 ‘신명나눔’은 악기 연주로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악 도서와 음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중학생 20명이 자연에서 온 재료로 만든 국악기와 국악기 강의, 미니 가야금 만들기, 감상과 연주를 진행해 국악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이처럼 최대한 도서관에 방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며, 여러 국악인과 협업해 강연, 공연, 독서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소리도서관은 도서 자료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목표다. 독서와 국악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예술 향유와 독서를 복돋는다는 비전에서 나온 것이다. 운영진들은 지속적인 협업과 홍보 노력, 국립국악원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미디어 기술의 활용으로 독서와 국악을 융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악 관련 미디어 자료의 고도화와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음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국악에 흥미 없는 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입으로 국악 인식을 높이고 있는 우리소리도서관. 젊은 층도 국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국악 활동과 독서 체험, 문화강좌 등을 통한 국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원 제공 서비스도 하고 싶어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슷해져서 국악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용 연령층도 더욱 확대되고 젊은 세대도 국악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Part 03

- 작은도서관 이용 후기 이벤트
- 작은도서관 가을 테마 사진 공모전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



2023 행사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맞이 이벤트

작은도서관 이용 후기 이벤트



제1회 도서관의 날 및 제59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독서, 프로그램, 동아리 등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한 다양한 활동 중 기억에 남은 이용 후기 이벤트에서 선정된 도서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목	작은도서관을 통해 큰 도서관이 된 아들!
도서관	[경남] 대방연리지작은도서관
참가자	손*영 이용자
활동종류	대면

활동소개

어느 날 초등 1학년 아들과 길을 걷다가 작은도서관 홍보 슬로건을 보게 되었다. 아이는 슬로건 문구를 읽으며 “아빠, 난쟁이들이 쓰는 작은도서관이 뭐야?”라고 물어봤다. 나도 내용을 잘 모르는지라 호기심이 생겨 아들과 슬로건에 적힌 집에서 3분 거리의 작은도서관에 방문했다. 말이 작은도서관이지 거기에는 수많은 책으로 가득 차 있고, 분류별로 구분이 잘 돼 있다. 도서 검색을 위한 pc도 있고, 거기에 없는 책은 신청하면 지역도서관과 연계돼 대출과 반납도 편리하다. 몇 권 빌려서 책을 봤는데 아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동화를 읽고 있었다. 나는 경제 서적과 이달의 베스트셀러를 읽었다. 우린 약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책을 읽고, 집에 가면서 서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너무 재밌어했다. 자연스럽게 독서가 토론으로 이어져 아이와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아 좋았다.

집에서도 아이는 엄마에게 읽은 책 이야기를 계속했다. 다음날 아내도 같이 작은도서관에 방문했다. 가족을 독서라는 고리로 이어준 것이다. 이전 퇴근 후 한 시간씩은 무조건 작은도서관에 가는 게 습관이 돼버린 우리 가족은 독서를 넘어 읽은 책 내용을 반드시 5분 이상 발표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어느덧 아이는 3개월 만에 독서량이 100권을 넘겼고, 독서토론과 책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져 눈술 학원 입시테스트 결과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실력까지 올랐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나와 아내도 손 놓았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경제 서적도 많이 읽어 같이 조금씩 주식투자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 기부하는 곳에서 우리가 사 읽은 책들을 기부해 사회에 공헌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널리 퍼트리고자 작은 힘이 되려고 노력한다.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쉽고, 부담 없이 이용하라는 뜻에서 ‘작은’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실제 도서관에 방문해보면 ‘큰’ 기쁨과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우연히 방문한 작은도서관 덕에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독서의 습관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제목	마음으로 그림책을 만나다
도서관	[경기] 두견마을작은도서관
참가자	도*자 자원활동가
활동종류	대면

활동소개

수원시 두견마을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한 성인 그림책 동아리 '마음으로 읽는 그림책'을 소개한다. 대상은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학부모들, 그림책에 관심 있는 성인 6명으로 2022년 10월에 시작해 지금까지 한 달에 1~2회 진행한다. 그림책은 어린이만 본다는 편견을 깨고, 마음으로 그림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몰랐던 감동을 느끼게 한다.

그림책 모임이 생소한 참여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작가별로 그림책 작품들을 읽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그림책 작가인 백희나, 이수지 작가를 시작으로 학부모들에게도 친숙한 앤서니 브라운, 존 버닝햄, 데이비드 위즈너 작가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작품세계가 어떨지 살펴봤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함께 보는 것이기에 많은 책을 준비해도 네다섯 권 보기에 시간도 부족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읽어만 주던 그림책을 동아리 모임에서 다른 분이 읽어주는 것을 들으니 직접 읽어줄 때와는 다른 감동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 읽어줄 땐 그냥 넘겼던 것들이 하나둘 보여 찾아내는 재미가 있다고 한다. 모임 때 읽었던 그림책을 자녀들에게 다시 읽어주겠다고 대출하기도 했다.

소장하지 않은 작품들은 공공도서관에 가서 대출해오는 수고도 있고, 작가에 대한 자료조사도 며칠을 소비했다. 동아리 운영자인 내가 모든 걸 준비했었는데, 작가를 조사하다 보면 몰랐던 부분이 알게 되고 애정이 생기길래 지난날부터는 회원들이 직접 준비하도록 했다. 모임이 편해진 회원들이 올 때 간식으로 군고구마와 여행 중에 사 온 지역 특산품, 직접 내린 커피도 가져와서 모임이 더 풍성해진다.

그림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연계할 수 있는 활동도 한다. 앤서니 브라운이 했던 쉐이프게임, 존 버닝햄의 작품 한 장면을 엽서에 그리기, 책을 소개하는 책보자기 만들기, 서현 작가의 작품을 읽고 클레이로 후라이와 떡 만들기 등 재미있게 활동했다. 참여자들이 매회 감동하고 돌아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동아리다. 그림책 동아리가 지속되길 바란다. 그림책을 사랑한다.

제목	"오싹오싹"도서관
도서관	[경북] 호미곶 작은 도서관
참가자	김*진 운영자
활동종류	대면

활동소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대보리에 위치한 호미곶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시고 노령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의 모습이다. 해돋이와 상생의 손으로도 유명한 곳이지만 현재는 관광객들도 많지 않아 관광 수입도 많지 않다. 당연히 아이들 숫자도 턱없이 모자라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인원수가 30명 남짓이다. 그래도 호미곶 작은도서관을 꾸준히 열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의 의미, 목적, 기여도 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오싹오싹"도서관 속에는 다섯 가지 오싹함이 있다. 재밌는 오싹함, 놀라운 오싹함, 친근한 오싹함, 반가운 오싹함, 마지막으로 다양한 오싹함이 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활동으로 아이들이 더욱더 다양한 오싹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운영자의 바람이다.

2023
행사

가을맞이 이벤트

작은도서관 가을 테마 사진 공모전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찍은 사진이나 작은도서관의 가을 풍경 등 <작은도서관 가을 테마 사진 공모전> 이벤트에 선정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 대상 ◎

▶ [경기] 강촌공원작은도서관

강촌공원에 자리한 예쁜 작은도서관 좋아요

강촌공원작은도서관은 리뉴얼을 마치고 아담하고 예쁜 모습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전에는 컨테이너 같은 외관이었는데 리뉴얼 후에는 붉은 벽돌의 외관이라서 작은 성당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 온 후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위치해 오다가다 자주 들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11월의 그림책 동물과 함께라는 주제로 큐레이션 되어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가 4개 정도 있어서 책을 읽다 가도 좋습니다. 소설, 에세이, 과학책 한 권씩 빌려왔는데 얼른 읽고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 우수상 ◎

▶ [경기] 해담은푸그 작은도서관



해담은푸그 작은도서관 드로잉동아리 가을전시회

해담은푸그 작은도서관에서 가을 마을잔치 한마당을 기획하며 드로잉동아리 '일그림' 작품을 전시해 회원들이 기뻐했습니다. 실내외 전시회로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캔버스에 새겨진 그림도 사랑살랑 나부킵니다. 가을 정원의 경치가 더욱 아름다워요. 회원들의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모습을 사진으로 한 컷 남겼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이송미 강사님의 우체통 콘서트

이송미 강사님이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날 기타를 메고 우리 도서관에 오셨습니다. 일상의 소소함을 노래로 들려주고, 참여한 분들의 한 줄 편지를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읽어주시는데 가슴 찡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가을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준 작은도서관이 감사해요.



▶ [경기] 설성작은도서관



이 가을에 詩가 자꾸 밀려와요!

시(詩)와 낭만이 있는 가을 풍경을 설성작은도서관에서 만나 보세요. 창밖에 담쟁이넝쿨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아름다운 오늘, 시에 사랑을 담고, 시에 풍경을 담아 가을의 낭만을 즐겨 봅시다. 작은도서관에서 만나는 창밖의 가을 풍경을 한 편의 시로 그려보세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좋은 책 한 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산간벽지 · 농어촌 · 섬마을에 사랑의 책 한 권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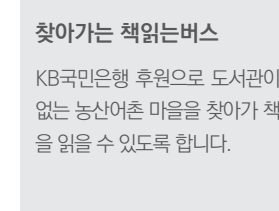
Since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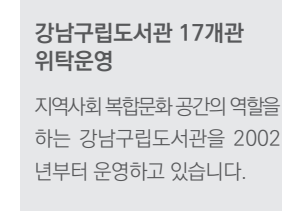
학교마을도서관 개설
농어촌, 산간벽지, 섬마을에 학교도서관을 개설합니다.



KB작은도서관 조성
KB국민은행 후원으로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찾아가는 책읽는버스
KB국민은행 후원으로 도서관이 없는 농산어촌 마을을 찾아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강남구립도서관 17개관 위탁운영
지역사회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는 강남구립도서관을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 · 실태조사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위탁으로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를 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론 공동캠페인

2008년부터 동아일보, 강원일보, MBC, 한국일보 등 다수의 언론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 작은도서관 이야기

발행일 2024.09.

기획 최민희

취재, 글 윤혜린

발행인 김수연

발행처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주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

전화 02-515-1178

팩스 02-515-1156

이메일 slibrary@naver.com

홈페이지 www.smalllibrary.or.kr

ISBN 979-11-966805-5-8